

외국학위 전성시대

김 동 훈

국민대 법학과 교수

학 기초가 되면 대학 내의 교수사회에는 신임교수의 충전으로 새로운 식구가 늘어난다. 대학신문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그들의 이력에는 외국의 우수한 어느 대학에서 학위취득이라는 화려한 소개가 실린다. 근자에 보니 여러 대학들에서 학교의 P·R 차원에서 일간지 등에 신규초빙교수들의 이력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거기에도 국학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외국 대학의 학위—그것도 대부분은 주로 미국의—가 화려하게 빛나고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신 대학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가히 외국학위의 전성시대인가 보다.

실로 외국학위는 오랫동안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요, 지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도 그 이름앞에 ‘닥터’가 붙으니 한층 권위가 돋보이는 듯하였다. 이후로 이 땅의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외국학위 취득이라는 청운의 꿈을 안고 멀리 바다를 건넜다. 나름대로의 고생 끝에 그들이 취득한 학위는 단지 명예만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빵의 문제, 출세의 문제, 모든 인생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학위

취득자들은 무엇보다 대학과 연구소 등의 아카데미즘의 세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교육과 학문의 기관이나 조직은 물론 그 내적인 흐름의 물줄기를 쥐게 되었다. 이것은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적어도 이 아카데미즘의 세계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 위하여서는 역시 외국학위라는 출입증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부푼 꿈을 간직하고 넉넉지 못한 나라의 많은 외화를 소비하며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피땀을 흘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학문의 연구와 교류 및 그 전수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오랜 역사를 가진 체계와 전통이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고등교육의 모든 형식과 제도 등이 소위 ‘근대적 교육제도’라는 이름 아래 서구의 대학제도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라면, 이러한 대학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가 선진의 국 대학의 것이 더욱 선호되고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아가 형식뿐만 아니라 대학의 소프트웨어까지 대부분 수입품으로 채워야했던 시절에 외국학위는 학문수입의 촉매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역

학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외국학위취득에 그 들인 노력 이상 가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것도 그런 대로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근대적 대학제도를 받아들인 지 백년이 넘은 지금, 외국학위의 전성 내지 흥수시대를 맞아 외국학위에 대해 한번쯤 되새겨 보는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작용 때문이다. 외국학위가 객관적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통제나 여과장치 없이 국내의 학위와 대등하게, 조금 우수한 외국대학의 학위는 국내학위보다 훨씬 더 선호되어 대학제도의 핵심 교수의 임용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더욱 이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게 한다.

첫째로 외국학위가 인정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학문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학문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 나라의 지성과 문화의 근본인 학문이 자주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적·문화적 면에서는 여전히 식민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학문의 첫 세대들은 일제의 학문 등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직접 선진 여러 나라에 유학해서 직수입으로 외국의 학문을 소개하는 데 그 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세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과 토양에 기초한 우리의 학문, 즉 국적있는 학문을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 국적있는 학문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의 생산의 결정적 통로인 학위제도가 국내학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어떤 학문적 결과물의 가치평가와 우리 학문에의 기여도의 판단기준과 권한을 우리 학계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때만이 우리 학문의 자주성 확립의 최소한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학위제도의 인정은 우리 학문의 체계적 발전을 저해한다.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자격증을 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위과정을 통한 연구의 결실이 그 학문분야의 체계적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더 본질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문의 발전은 우리 두뇌의 학문적 성과물이 벽돌이 쌓여 집을 이루듯 차곡차곡 쌓여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경우 그 나라의 학문발전엔 혹시 기여할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두뇌의 피땀의 결실이 대개는 외국 대학의 도서관의 지하창고에서 휴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학문의 연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이루어질 지라도 그 최종적 결과물은 국내학계에 제출되어 엄밀한 비판을 받고 우리 학문의 탐의 한 벽돌이 되어야 옳다.

셋째로 외국학위의 인정은 우리 학문의 연속성을 파괴한다. 학문의 발전이란 앞시간 선배들의 개척적 연구의 기초 위에 후학들이 발전적 연구를 축적시켜 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큰 물줄기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이 학문의 연속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학위 제도이고 이 학위과정을 통하여 지도교수와 그 재자들 간에 학문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이 흐름이 보다 큰 물줄기를 이룰 때 거기에 학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학위제도는 이 학문의 흐름을 단절시킨다.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직접 지도받았다는 이들은 이 땅에서 저마다 元祖들이다. 자기 선생의 이론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큰 낙이다. 국내의 원로 교수들과의 사제관계라는 것은 알맹이인 학문의 전수는 빠지고 단지 학연·지연 등을 따라

모이는 파벌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오히려 학문발전의 장애물인 경우가 많다. 진정한 학문의 전수, 나아가 학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에 참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로 외국학위의 열풍은 국내학계의 연구공간의 空洞化를 가져온다. 학문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다. 젊고 학문적 열정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는 연구인력이 모여있는 곳에서 학문발전의 역동성이 나온다. 근래에 국학 분야에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모임이 생기고 이 모임들로부터 왕성하고 질 높은 연구업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일찍이 자연과학 분야 등에서 많은 노벨수상자를 낸 일본의 대학도 그 근원지는 대학연구소의 조그만 교실을 중심으로 모여든 젊은이들의 열기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능력있는 모든 학자지망생들의 한 가지 소원은 외국유학과 학위취득이다. 어느 국립대학의 대학원 책임자는 자기의 대학원이 오래 전에 유학 준비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창의와 열정이 넘치고 장차 우리 학계를 젊어갈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황량한 공간에서는 무기력과 권태만이 남아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의 연구공간으로 돌아오고 이 공간을 사랑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학위제도의 현실 아래에서는 그들을 붙잡아 둘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선진외국학문을 배워오는 것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선 분야의 학문은 더욱 열심히 배워 그들을 따라잡고 나아가서는 학문의 역수출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학문을 배워오는 데 학위취득이 꼭 필수적 장치인가 하는 점에 회의감을 갖는 것이다. 학위취득과정은 짧은 시간에 아주 특정한 주제에 몰두해야 하므로 그 분야의 학문의 전반적 모습을 조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학위주제의 선정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로 비교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분야의 핵심부분을 배우는 데 적당치 않다. 개인적으로 외국유학은 留學보다는 遊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여유있는 마음으로 전문을 넓히고 새로운 사조에 접하여 자극도 받고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우리 학계에서 사전의 충분한 학문의 연찬과 성숙을 이룬 후에 遊學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또한 적어도 사후적으로라도 외국학위에 대한 공적인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학위 취득자는 귀국후 일정기간 내에 학위논문의 번역본을 교육부에 제출케 하고 해당학회 등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여 이를 다한 경우에만 외국학위의 국내통용을 허락함으로써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학위에 대한 여과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우리 두뇌의 학문적 성과물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우리 학계의 자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학위가 아무런 여과나 검증도 없이 국내에서 통용되고 선호된다는 것은 마치 미국의 달러화가 환전도 안 거치고 구매력을 가진 화폐로 통용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의 학문의 주권의 포기'라고 감히 부르고 싶은 것이다. ▣